

주제: 애천교회

목 차

I . 서론	1
II . 본론	1
1. 연혁	1
2. 교리(30개론)내용과 비판	4
3. 교리의 전체적인 문제점	12
4. JMS집단의 활동	14
5. 반(反)JMS운동모임, ‘EXODUS’ 소개	17
6. JMS의 현황	18
7. JMS와 관련된 피해와 사건	20
8. JMS와 관련된 최근의 상황	21
III . 결론	22
참고문헌	23
부록	

‘애천교회(JMS, 정명석)’에 대한 이단연구

I. 서론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24:23)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7:15) 기독교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적으로도 성범죄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중의 하나가 바로 ‘정명석’ 이 교주로 있는 ‘JMS’¹⁾일 것이다. JMS는 지금까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4번이나 직격탄을 맞았다.²⁾ 이 일로 JMS의 이단성과 그 해악이 사회에 알려졌고, 결국 정명석은 현재 해외에 도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방송된 2002년 11월 2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명석이가 해외에 나가서까지 그의 이단활동과 성추행 행각을 계속하다가, 현재 현지(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이었다. 이제 정명석의 JMS 이단문제는 국제무대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그 활동과 사건사고를 크게 야기 시키고 있는 JMS를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다. 요즈음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JMS의 이단성을 바로 정리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론 각 교회는 혼란과 미혹에 대해 우려와 위험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그들의 이단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폐해를 연구하여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본론에서 정명석과 JMS에 대한 연혁을 살펴본 후, 그들의 주요이론 사상인 30개론을 설명하고 또한 성경적으로 비판해 보며, 현재 그들이 펼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정리하겠다. 그리고 현황과 피해사례 그리고 최근 재판/사건/방송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결론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을 적고,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간략히 생각해 본 후 본 보고서를 맺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연혁

1) 교주 정명석

정명석은 1945년 2월 17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에서 정판성(父)씨의 4남 3녀 중 셋째

-
- 1) 정명석의 영문 initial은 J .M .S.이다. 그런데 M을 빼면 J. S. 곧 JESUS이다. 또 J를 빼면 MS 곧 Messiah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MS회원이라고 부르는데 명석 회원이라기에 어색하니까, MS를 Morning Star, 즉 새벽별 회원이라고 한다. 이런데도 그들은 JMS를 JESUS MORNING STAR 혹은 JESUS MESSIAH SAVIOR의 약자라고만 주장할 뿐, 교주인 정명석의 이름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명석이 카드, 설교문 등에 사용하는 사인 JMS는 자신이 JMS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 2) SBS방송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JMS에 대해 지금까지 모두 4번을 방송하였다.(1999년 3월 21일 1차 방송, 1999년 7월 24일 2차 방송, 1999년 12월 25일 3차 방송, 2002년 11월 2일 4차 방송.)

아들로 태어났다. 가족의 말에 의하면 정명석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려서 유년주일학교에 다니면서도 당시 그 고장에서 장난 삼아 행해졌던 춘향이 신(神) 주문을 외어 부른다는 미신 행위에 흥미를 느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끔 친구들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주문을 외우며 춘향이 신(神) 부르는 놀이를 즐겨했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남달리 종교심이 강했고 신비적인 것을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정명석은 고향에서 국민학교만을 마치고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뜻을 같이하는 친구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기도원 생활을 했는데 그는 주로 용문산 기도원(나운몽)³⁾에 오래 있으면서 기도생활과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공부에 몰두하는 등 20여년을 세상을 등진 채 여러 기도원을 돌아다니며 산사람으로 젊음을 보내고 40세의 중년이 되어서야 기도원생활을 청산하고 하산했다.

정명석은 기도원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을 1,300독을 하여 통달했으며, 남들은 40일 금식기도도 겨우 하는데 자신은 70일 금식기도도 했고, 겨울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기도하다가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 손톱이 모두 빠졌다가 기형의 손톱이 나기까지 열심있는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성경해석의 특별은사와 이 시대의 중심인물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와 애천교회(애천선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은사와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정명석은 집으로 돌아온 후 본래 다니던 교회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금산의 통일교를 스스로 찾아가 출석하므로 '통일교 신도'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곧 그의 기도원생활과 그가 받았다고 하는 특별은사와 사명은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 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던 정명석은 얼마 후 통일교 기관의 하나인 '국제승공연합' 강사요원으로 발탁되어 약 2년간 활동했다.

1980년 정명석은 통일교를 떠나 서울 신촌에 셋방 하나를 얻어 생활근거지를 정한 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일할 동지규합에 나서 얼마간 노력하던 중 젊은이 5명을 포섭하게 되자 '신촌 5형제'란 이름으로 의형제를 맺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을 서로 굳게 다짐하게 한 뒤 '애천선교회'란 기독교 유사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정명석은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통일교 '원리강론'을 표절하여 '30개론'이란 통일교 유사교리를 만들어 그것을 이 시대를 위한 새 진리라고 하면서 동지들로 하여금 포교활동을 전개케 하는 한편, 신도들에게 자신은 예수의 영이 재림 부활하여 내재한 이 시대의 중심인물로 사명을 받았으므로 1999년에는 세상을 심판⁴⁾한 뒤 이 땅에 지상천국을 건설한다고 가르치는 등 애천교회를 교주 송배형 사이비 집단으로 종교화했다.⁵⁾

2) 애천교회의 연혁과 계속되는 명칭변경

1980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교주 정명석과 김기회, 안구현, 서인순, 김형만 등 신촌 5형제에 의해서 애천선교회가 창립되었다. 정명석 집단은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비판적인 젊은 층 특히 대학생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하였다. 교세가 확장되자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학 캠퍼스 내로 침투하여 서클을 조직하는 등 대학 내의 각종 기독교 선교단체들과 대항하며 적극적인 조직과 포교활동을 벌여 교세를 확장시켰다.⁶⁾ 교세가 확장되면서 집회장소

3) 용문산 기도원은 초창기는 계몽운동, 발전기는 신비주의 기도원운동, 후에는 동양적 신령신학으로 빠졌다.

4) 통일교의 문선명이 전역사의 재림주이며, 정명석은 문선명으로부터 1978년부터 재림주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중심 인물로서 1999년 7월14일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였다.

5) 심창섭·김도빈·오영호·박영관, 기독교의 이단들(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2000), pp. 274-276.

6) 대학생과 청년을 상대로 한 포교활동은 주로 '애천 선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후에는 '세계청년대학생

를 신촌에서 성북구 삼선동, 을지로 4가 등으로 옮겨다니다가 1982년 5월에는 강남구 삼성동 130-1의 빌딩 5층을 임대하여, 애천선교회 간판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애천교회’라는 간판을 달았다. 특이한 것은 능력 있는 신도들을 정예화(통일교 문 집단식)하여 대학이나 직장 등에서 정명석 교리 강사나 단체 리더로 활동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그 해에 신도수가 200여명에 이르는 성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983년 6월 정명석 집단은 강남에서 세검정 구기터널 옆 종로구 구기동 125-1의 인치상 장로 소유 건물인 ‘교역자 복리원’ 5층으로 옮겼다. 1983년 11월 26일 교주 정명석은 인치상 장로의 도움으로, 그 당시 애천교회 건물 4층에 세들어 있던 예수교 대한감리회⁷⁾에서 ‘선(先) 안수, 후(後) 가입’ 조건으로 애천교회 핵심멤버 중 6명과 더불어 목사안수⁸⁾를 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애천교회’를 ‘예수교대한감리회 애천교회’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그 당시 교세는 약 5-6백여명 정도로 성장했다.⁹⁾

1984년 초에 예감 감독이었던 박용식씨가 갑자기 총회 서류를 싸들고 사무실 문을 잠가 놓은 채 모습을 감춰 버리자 애천교회 정명석 교주는 예감 총회 사무실을 애천교회 사무실로 얼마동안 사용했다. 그 후 권주환 목사와 전 노아선교회 한국대표를 비롯한 웨슬레신학교 출신 몇 사람들이 모여 교단을 수습하고 애천교회 교주 정명석을 총회 임원에까지 세웠다. 정명석 집단은 현재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조직 확대하고 해외에도 침투하여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세력은 1만 여명(1999년 기준)의 신도로 성장하였고, 그 본부를 충남 금산 소재 명월동 정명석 교주 고향으로 옮겼다.¹⁰⁾

이들 집단의 이름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천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애천교회, 예수교대한감리회 애천교회, 예수교대한감리회 영동교회, (예수교대한감리회 낙성대 교회, 봉천6동), 1986년 9월에는 예수교 대한 감리회 진리축이라는 교단을 창립하고 예수교대한감리회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현재 전국에 지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또한 청년과 대학생들을 적극 포교포섭하기 위해 이들은 별도의 명칭을 만들어 각 대학교에서 서클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그 이름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애천선교회, 세계청년대학생 MS연맹, 동서크리스찬연합, 국제크리스찬연합 등의 이름을 가지고서 활동하다가 최근에는 기독교복음선교회(CGM)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¹¹⁾ 그러나 이것은 다 같은 JMS집단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리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또한, 이들은 최근 다양한 문화행사를 벌이며 다양한 방법(미소운동, 월드컵, 부산아신안게임 등)을 동원하며 자신들의 포교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¹²⁾

3) MS들의 정명석에 대한 이해¹³⁾

MS연맹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이후에는 ‘동서크리스찬연합’, ‘국제크리스찬연합’등의 명칭을 갖고서 활동하다가 최근 ‘기독교 복음 선교회(CGM)’라는 이름으로 JMS는 일반 및 대학,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7) 당시 예수교 대한감리회의 감독겸, 웨슬레신학교의 교장은 박용식 목사였다.

8) 정명석은 신학교를 가지도 않았다. 인치상 장로는 당시 주일학교 교사의 신학교육을 위해 사설로 운영하던 ‘한국성경통신대학’에서 정명석에게 졸업증서와 거의 A학점의 성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었다. 이들은 1인당 50만원씩을 주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에 가입, 예감 총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9) 이대복, 이단종합연구(서울: 기독교이단문제연구소, 2000), pp. 647-648.

10) Ibid.

11) 반JMS모임인 ‘EXODUS’에서 만든 JMS반대 브로셔의 내용에서 인용, <http://antijms.or.kr>

12) 정명석 JMS(애천교회)이단이 나오기까지 국내이단의 흐름을 찾아보길 원하면,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13) 이 자료는 서울대 JMS 동아리 제명 사건 당시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이 작성한 대자보자료이다. 반JM모임인

그들 집단의 간행물의 일부를 인용하여 MS들은 어떻게 정명석을 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노래와 만세를 목청껏 외쳤던 1945년! 그해 대한의 육적 해방 앞에 하늘의 역사는 시대의 인물을 보내 주셨다. 마치 영육 간에 해방을 노래하듯 1945년 2월 3일 이름도 없는 충청도 달밖골에서 선생님께서는 태어나셨다 ... (중략)... 그저 선생님의 탄생은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닌 하늘 부모와 예수님 그리고 온 세상 만민의 기쁨인 것이다. 시대의 스승이자 주인이신 선생님의 탄신을 온 세상 만민과 함께 맞이해야 할 이때에 오늘에 있는 MS는 그의 탄신을 온 세상에 대표해서 매년 탄신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다. ... (중략)... 이제 선생님의 탄신의 의미를 성서에서 찾아 오늘 다시금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MS들은 선생님의 탄신을 분명 후세에 전해야 할 것이다." -영동교회 1987년 3월 22일 발행 '빛' (영동교회 자체 발행물) 제 4호 page 15

4) 정명석의 자기이해¹⁴⁾

교주 정명석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만물을 통해 계시를 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기에 내가 직접 말씀할 때 하늘의 계시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 낙성대교회 군선교부 89. 12. 24. 주일

"지금도 모세 때처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니 나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다. 왕의 농담이 하인의 몸부림의 진정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낙성대교회 군선교부 89. 12. 24. 주일

"하나님 마음이 수만번씩 변하니 그것을 맞출 수 있느냐 그러나 나는 수시로 물어보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니 나한테 자주 물어보고 기도하고 영감 받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과 같으니 나를 섬기고 받들면 신앙의 병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나태 병, 해이한 병 등 본인은 모르나 내가 보면 광선을 스치듯 다 알게 됩니다." - 낙성대교회 군선교부 90. 1. 7일자 주보

이제 우리는 교주 정명석 자신도 스스로를 신격화함을 알게 되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도서출판 새벽문화(이것도 JMS 집단 내의 출판사이다. 책 발행처와 87년 낙성대 교회 주보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같다.)에서 발행한 정명석 총재의 잠언집 제1집이라고 되어있는 그의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늘말 내말」이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 책의 추천의 말의 일부를 인용해 보자.

"이 잠언 말씀은 영원 불변한 하늘의 말씀이기에 금세의 향후 1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인류의 심령과 삶을 감동시키고 이끌어나가는 영원한 가르침이요 메시지적인 것이라 믿으면서 ..."

그 정명석이가 적은 잠언집 「하늘말 내말」 제1집의 일부 내용을 부록에 실었다. 또한 그가 영감으로 지었다는 시들과 개사(開寫)해서 부르는 곡들이 있는데 몇 편 실었다.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으로는 그들의 교리를 알아보고 비판하도록 하겠다.

2. 교리(30개론)내용과 비판¹⁵⁾

EXODUS에서 인용. <http://antijms.or.kr>

14) Ibid.

15) 탁명환, op. cit., pp. 260-268.

정명석의 교리는 '정명석이 구세주이다'는 대전제 아래 교리를 주장한다. 이들은 이 대전제 아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나 역사성,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이다. 정명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엘리 제사장과 같고, 기독교 교리는 빛을 잃은 구 시대의 산물이 되고 말았으므로 새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시대의 중심인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¹⁶⁾ 정명석 집단의 사상은 교주 정명석이 만든 '30개론'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정명석의 교리는 대부분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표절, 수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명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서의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하나의 비유로 보고 현대인들의 사고에 맞게 해석하여 그 내용을 집단의 교리로 삼고 있다. '30개론'의 교과과정은 총 4단계(입문, 초급, 중급, 고급)¹⁷⁾로 구분되어 있다. 이 교리를 학습시켜 공부가 끝나면 시험을 치르며 합격하면 고유번호를 주어서 정회원의 자격을 준다. 반복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세뇌시켜 그들의 주장에 몰입하게 된다. '30개론'을 단계별로 보고 모순 점을 간단히 언급하겠다.

입 문

1) 성경을 보는 관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비유를 잘 풀어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늘의 비밀 과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 더 나아가서는 인간 삶의 목적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성경을 시대성이나 과학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또는 교리에 얽매어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등 성경을 보는 관이 잘못되어 있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성경을 바로 풀 수가 없다."

정명석이 성경을 보는 관을 30개론의 첫 관문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명석은 자신이 구세주라는 대전제를 세웠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원하는 구절을 취사선택하기 위해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태양아 멈추어라(수 10:12)

"현대인들에게 태양이 도는가 지구가 도는가 하고 물어보면 누구나 지구가 돈다고 한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므로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나 태양이 멈추었다고 되어 있으니 지동설 시대에 천동설 해석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딱하다."

정명석은 "태양아 멈추어라"는 표현은 천동설 시대의 표현이므로 현대인에게는 지동설에 맞게 가르쳐야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 역시 정명석을 구세주로 보는 대전제 하에 성경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한 합리화 작업이다. 천동설 시대에는 공중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지동설 시대에는 지상재림, 즉 지상천국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작업 인 것이다. 동시에 그는 이 논리를 내세우며 현 기독교가 매우 비과학적이며 성경해석을 잘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명석 자신이 당시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태양

16)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서울: 한국종교문제연구소, 1989), p. 255.

17) **입문**: 1.성경을 보는 눈 2.태양아 멈추어라 3.엘리아와 까마귀밥 4.7단계 법칙 5.삼분설 /**초급**: 6.비유론 7. 불의 세계 8.말세론 9.무지의 상극세계 10.홍수심판 11.이단의 개념 12.예정론 /**중급**: 13. 중심인물론 14.부활론 15.사단론 16.가인의 성격 17.영계론 18.계시론 19.메시아 자격론 20.천년왕국론 /**고급**: 21.예수님과 엘리야의 재림 실상비교 22.세례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사명 23.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비교 24.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 25.한 때, 두 때, 반 때 26.창조목적 27.타락론 28.구원론 29.재림론 30.역사

아 멈추어라"는 말이 가장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태양아 멈추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3) 엘리야 까마귀 밥(왕상 17:1-7)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물어 줬던 고기와 떡은 깨끗한 것이 아니고 실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에게 제사 드렸던 것으로 심정 괴로운 음식이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르밧 과부 집에서의 기적도 사실은 엘리야가 말씀과 법칙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과부집에 가루를 갖다 준 것이다. 결국 기적과 이적은 법칙과 진리다."

이 역시 ①, ②단계와 같이 정명석을 구세주를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이 내용은 어떠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 해 놓은 것이므로 억지로 풀어야 할 이유가 없고, 특별한 해석을 가할 필요도 없다. 비록 까마귀가 우상의 제물을 물어다 주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이므로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명석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4) 7단계 법칙

우주가 7가지 법칙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므로 모든 것은 이 법칙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 : 광물계(광맥을 찾지 못하면 광물을 캐내지 못한다)

2단계 : 생물계(생리에 맞지 않으면 썩는다)

3단계 : 물질계(물리적 조건에 맞지 않으면 썩는다)

4단계 : 땅(지리적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진, 폭발, 해일 등이 일어난다)

5단계 : 우주(원리에 맞지 않으면 균형 파괴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6단계 : 인간(심리가 맞지 않으면 미움, 시기, 분쟁 등이 일어난다)

7단계 : 하나님과 인간(진리에 어긋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는다)

이 법칙들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교리화해서 가르치는 것도 정명석 자신을 구세주로 만들기 위해 유치하고 인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5) 삼분설

"영과 혼과 육을 말하며 첫째 사망은 영, 육, 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며, 둘째 사망은 영과 하나님과의 수수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주장도 성경적 근거가 없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심판(둘째 사망)을 부정하고 자신이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죽음이다. 둘째 사망은 심판 때 받게되는 불과 유황 심판이다.

초 급

6) 비유론

"성경은 절대적으로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비유를 알아야만 성경을 바로 풀 수 있다.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 그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비유가 필요 없었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비유가 필요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 시대의 중심 인물만이 상징과 비유로 인봉된 말씀을 바로 풀 수 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사용해서 친숙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개념을 적절하고 친숙한 표현으로 사용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그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비유가 필요 없었다'는 논리는 비 성경적이다. 그리고 이 비유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 시대의 중심 인물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유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그 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항상 열려있는 말씀인 것이다.

7) 불의 개념(벧후 3:8-13)

"불이란 개념부터가 하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 기독교에서는 재림 예수가 오시면 불로 심판한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다. 여기서 철통같은 고정관념을 깨 부셔야 한다. 그럼 불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알아보자. '허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약3:6), '내 말이 불 같이 아니하냐'(렘23:29), '입에서 불이 나와'(시18:8),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계11:5) 위의 성경 구절에서 불이 말씀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였듯이 예수께서는 진리의 불로 심판하셨는데 멍청한 유대인들이 몰랐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불을 잘못 인식하므로 언젠가는 지구가 불에 타서 사람을 당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약3:6과 렘23:29에서 말하는 불은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의 불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불이 상징적인 불은 아니다.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 상을 심판하실 때의 불은 실제의 불이다.

8) 말세론

"기독교의 종말관은 오직 믿는 자만 천당 가고 지구는 멸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말세는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서 오는 잘못이며 천동설 시대의 말세관이므로 현대에서는 지동설적인 말세관을 가져야 한다. 구약시대의 말세관도 똑같은 말세는 끝이 올 줄 알았다. 역시 신약시대의 현 기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구약의 말세도 예수님이 지구의 끝을 맺지 않으셨고 신약 역시 마찬가지다."

기독교적 역사관은 정명석이 자주 사용하는 '천동설 시대'나 '지동설 시대'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직선적 역사관이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임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갈4:4; 히9:26)이 이루어졌으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마24:1-51), 죽은 자의 부활(고전15:51-58; 살전4:13), 세상나라의 멸망(벧후3:10-13),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계21:1-8)으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한다.

9) 무지 속의 상극세계(대하 35:18-26)

"애굽의 느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려고 하는데 유다의 요시아 왕이 무지하여 느고를 방해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 죽고 결국은 세나라가 바벨론에게 모두 망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시대적 배경을 깨우치기 위한 것인데, 애굽은 통일교요 유다는 기독교이며 갈그미스는 북괴요 바벨론은 애천교회라는 것이다. 결국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교주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참으로 유치한 말이다. 위에 언급된 구약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북한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10) 홍수심판

홍수심판에 대해 전체 심판이나 부분심판이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볼 때 부분 심판이란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노아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복음이 메소포타미아지방만 전파되고 다른 지역이나 나라 에 전파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주지도 않고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에베레스트산정까지 물이 차려면 지구에 있는 물의 8배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어디서 나느냐는 것이다.

창 7:11에 언급되어 있는 '큰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들' 위에 존재했던 물이 터졌다. 결과적으로 이 깊음의 샘들이 노아 홍수 시 150일간의 물 공급의 중요한 근원이었다면 이 샘들은 광대한 양의 물을 함유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11) 이단의 개념(요 12:22)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단의 개념도 모르고 이단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단의 개념은 시대, 역사, 장소에 따라 틀리며 과거의 이단이 현재에 정통이 되기도 하고 미래에는 다시 이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누가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함부로 이단이란 판단을 하지 말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실 줄로 알고 있다. 옛날 유대인과 똑같은 인식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는다. 예수께서 보낸 자가 다시 온다. 예수님이 그(정명석)의 몸에 오셔서 보낸 자 (정명석)를 통해 재림 예수의 일을 하신다."

그러나 정명석 집단은 성경의 근본교리에 있어서 명백하게 이단이므로 시간이 흘러도 이단일 수밖에 없다. 정명석이 구세주라는 주장은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발견할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단으로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

12)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을 '절대예정'과 '상대예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절대예정은 칼빈의 주장을 말하고, 상대예정은 인간의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계약이행을 요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명석 자신이 메시아임을 예언의 성취로 내세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정명석과 심판의 날짜에 대한 예언은 없다.

중 급

13) 중심인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중심인물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먼저 지구를 선택하시고 다음 한 민족을 선택한 다음, 다시 한 가문을 또 한 가정을 선택하신 다음 그 가정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하도록 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명석의 중심인물론은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14) 부활론

"아담과 하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종으로 부활되는 역사였다. 예수께서는 종을 아들로 부활시키려고 오셨던 것이며 또 영적 죽음의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께서는 육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벧전3:18). 재림주가 오셨을 때의 죽은 자들의 부활도 육이 아닌 영적 부활이다. 입신할 때 살아서 믿는 자의

부활을 중생부활이라 하고 옛날의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재림부활이라 한다."

예수께서는 영(靈)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이 영육(靈肉)의 부활임을 나타내기 위해 제자들 앞에서 떡과 생선을 잡수셨다(요21:13). 또한, 도마에게는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고 하셨다. 이 사건들은 예수의 부활이 영만 의 부활이 아님을 보여준다.

15) 사탄론

직접 주관 → 욕

간접 주관 → 노이로제, 자신의 생각

16) 가인의 성격

"가인의 성격이 악했었으므로 교만, 시기, 질투 등은 가인의 성격과 같은 것이다."

17) 영계론

"영계는 지상 영계, 천상 영계, 선 영계로 이루어져 있다.

① 지상 영계는 선영계: 구약, 이방의 양심 구원자들이 가는 곳,

음부: 구약, 이방의 심판 받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되어 있다.

② 천상 영계는 낙원: 그리스도(초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

무저갱: 예수를 믿고 배신 타락한 영이 가는 곳,

천국: 재림 섭리의 구원자들이 가는 곳,

지옥과 불바다: 재림섭리의 심판자들이 가는 곳으로 되어 있다.

③ 선영계는 이방의 양심 구원자들과 함께 타종교를 믿었거나 선행을 한 사람이 가는 곳.

영계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영들을 찍어보면 구름 같이 형태가 명확치 않은 영도 있고 또 형체만 있는 영이 있고 형체급 영은 완전히 만져지는 영이다. 부활 후의 예수의 영도 형체급 영이어서 만져 볼 수가 있었다. 죽을 때 몸이 썩시고 아픈 것은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며 오랜 금식기도 중에도 영은 먹고 있고 영계에도 시간과 성장이 있다. 영계는 직접 가봐야 확신할 수 있으므로 애천교회 교인들은 많은 사람이 영계 견학이나 입신을 통해 영계를 직접보고 있다."

위에 나오는 영계에 대한 용어들은 원리강론에서 도용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 접치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서 벗어나, 영계에서 예수를 믿으면 낙원에 갈 수 있다는 논리는 비 성경적이다. 자유롭게 영계 견학을 할 수 있는 것은 강신술 등을 이용한 방법이지 이것은 메시아적 사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18) 계시론(마 11:27, 암 3:7)

① 특별계시: 음성, 말씀, 성경

② 자연계시: 만물계시(롬1:20), 실체계시(요4:6-12)

③ 초자연계시: 꿈, 환상, 비몽사몽, 이상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누고 있다.

19) 메시아 자격론

"하나님과 심정일체 된 자, 죄의 문제 해결을 주는 자, 진리를 아는 자, 창조 목적을 가르치고 이루는 자 등 메시아 자격 요건을 30가지로 규정해 놓았다."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메시아 사역'이면 몰라도 '메시아 자격'에 대해 논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분의 주권인 것이다. 하지만 정명석이 규정하는 메

시아 자격론을 보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 비 성경적인 논리를 편 것이다.

20) 지상천국론(계 20:4)

정명석은 성경에서 땅은 영원하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새 하늘과 해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거기서 지상천국을 이루어 영원히 산다는 것이다.

고 급

21) 엘리야와 예수님의 재림승천 실상 비교

"엘리야 → 승천 → 재림 = 세례요한에게 영이 강림,

예수님 → 승천 → 재림 = JMS에게 영이 내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 예수님의 영 강림의 날"

예수께서는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막9:13)고 하심으로 세례요한이 말라기(말4:5)에 기록된 엘리야임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재림한 것은 아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다. 따라서 엘리야가 재림하여 세례요한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정명석 자신이 재림예수가 되었다는 논리는 잘못이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행1:11).

22)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관계사명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닌데 세례요한이 의심과 시기로 인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속히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또 영과 육 중 영만 구하고 돌아가셨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려는 자는 오라 했고 예수께서는 회개한 자는 오라고 했다."

예수께서는 과연 세례요한의 모함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인가? 복음서를 보면 세례요한은 공공연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1:29,36)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며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영과 육 모두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세례요한의 모함에 의한 것이 아니다.

23)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 비교

"초림 예수와 재림예수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것과 종말에는 불 심판이 있을 것과 부활 때는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생각과 믿음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으므로 기독교는 현대의 유대교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정명석은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합리화한다. 정명석은 유대교를 이단으로 보고 있다. 이 유대교와 교리가 같으면 기독교도 이단이며, 기독교는 이단이므로 정명석 집단을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4)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계 11)

"아담-하와, 이스말엘-이삭, 에서-야곱, 11형제-요셉, 루터-칼빈, 성부-성신, 전역사인물-후역사인물 등 시대의 사명자들이 두 사람씩 나타난다."

이 단계도 정명석 자신이 메시아라는 대전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운 논리이다. 시대의 사명자들이 2명씩 나타난다는 논리를 통해 자신이 시대의 사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든 역사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역사를 오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5) 한 때 두 때 반 때

668 + 1260 = 1948년 (이스라엘 해방, 즉 제1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해방)

668 + 1290 = 1978년(제 2 이스라엘 민족(현 기독교인)의 영적 해방, 영적 지도자 바뀜)

668 + 1335 = 2023년(정명석의 공생애 기간이 끝나는 1999년)

위의 산출 근거는 단12:7, 계12:14(한 때, 두 때, 반 때)와 단12:9-13(멸망케 할 미운 물건, 1290일, 1335일) 겔4:5-6(390일, 1일이 1년), 계11:2, 13:5(42달), 계11:3, 12:6(1260일) 등의 숫자를 인용했고, 668이란 숫자는 '멸망케 할 미운 물건' = AD 668년에 회교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다는 것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가 세워진 1948년과 정명석이 문선명으로부터 재림주권을 이어받았다는 1978년을 성서적으로 합리화시켜 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논리는 이장림의 '다미선교회'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시와 때에 대해 임의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26) 창조목적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법이었다. 이것을 풀지 못하면 성경을 풀 수가 없다. ... 금단의 열매는 하와인데 여자가 선악과이다. 남자의 중앙은 생명나무이며 여자의 중앙은 선악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6천년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동산 주변의 나무실과는 먹을 수 있으니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갈빗대 하나로 인간을 만들 수 없다. 남자가 번식하는 것이 갈빗대를 부러뜨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갈빗대는 정자를 말하는 것이다. 왜 갈빗대로 표현했는가? 이는 정자는 뼈를 만드는 사명을 하므로 갈빗대로 표현했다. 난자는 살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생님(정명석)께 가르쳐 준 것이다. 인간의 핵은 정자와 난자다."

흠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따로 있다. 어머니 유전자와 아버지 유전자가 부딪힐 때 한 존재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한 유전자만 가지고는 사람이 안 된다. ...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시다. 육신이 태어나듯이 하나님도 그 상대자와의 생명의 파장으로 생명이 시작된다.

정명석은 성경을 인용한다고 하지만 흠으로 된 인간의 존재를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아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 실제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다.

27) 타락론

"선악과는 하와이다. 나무열매는 번식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하와의 생식기이다. 먼저 사단의 상징인 뱀이 하와를 범함으로 사단의 피를 전했고(영적 타락 : 하와와 천사-뱀-와의 불륜의 타락을 말함), 하와는 아담과 성행위를 함으로써(육적 타락 : 하와가 타락 후 아담과 부부관계를 맺음으로) 사단의 피를 전했다. 그리하여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번식시키지 못하고 사단의 악의 혈통을 번식시켰다. 인간의 더러운 피를 깨끗이 하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영혼만 구원 하셨기에 육신을 구원할 재림주가 다시 오신다."

아담은 아내와의 불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한 것이다. 정명석의 타락론과 구원론은 통일교의 원리강론과 같다. 그는 주장하길 이제 문선명의 시대는 끝나고, 자신이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8) 구원론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이고 인식관이다. 이런 식으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조차 타락한 경로와 어떻게 타락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지? 안다고 하나, 정말 아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는 없다.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일반적으로 옥을 음부라 한다. 그곳은 중간 영계다. 영들끼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이방구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의 사람과 산골짜기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선영계, 음부)에 가서 복음을 듣게됨(영적 세계에서 의 전도). 이 시대는 선생님(JMS)을 중심 하여 말씀으로 구원시켜야 한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데 있다(요3:16). 이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누구든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믿지 않고 죽은 자도 영계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명석 자신이 지어낸 얘기일 뿐이다.

29) 재림론

"기독교에서는 예수께서 공중으로부터 육신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고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야의 영이 세례요한에게 재림하고 모세의 영이 예수님에게 재림하듯 재림주는 부활승천 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가운데서 시대적 중심인물을 선택하여 그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여 협조하므로 재림 예수의 사명을 하게 하신다."

이제까지 정명석의 논리가 결론을 맺는 것 같다. 시대의 중심인물인 자신이 재림주임을 비성경적 논리로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영이 임한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다.

30) 역사 (계8:13, A,B,C)

마지막 단계에서 정명석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사역을 말한다.

① 전 역사: 1954년 ~ 1978년 문선명의 재림주로서의 공생애 기간

② 후 역사: 1978. 6 ~ J.M.S 공생애 시작

1999년 → 말씀선포

1999년 ~ 2023년 → 인봉

③ 영적 전쟁(아마겟돈전쟁): 기독교 ↔ 통일교

기독교 ↔ J.M.S

우리는 30단계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정명석은 한국에서 태어나 사단의 괴수 노릇을 하는 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3. 교리의 전체적인 문제점¹⁸⁾

1) 그릇된 성경관

성경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성경 외에 정명석의 가르침이 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통일교에서 구약, 신약에 이어 성약 곧 문선명의 가르침을 덧붙이는 것과 같다. 30개론 중 계시론을 유의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영계와의 직접 교통이 가

18) 강대훈, "이단 정명석(JMS) 집단에 대한 비판", 반JMS모임 인터넷 <http://antijms.or.kr>에서 인용

능하며 지금도 계시는 계속된다고 가르친다(30개론 중 영계론). 성경의 역사들을 상식적인 과학으로 비추어서 문자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창조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기사와 이적 그러한 사건들은 모두 비유이며 정명석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30개론 중 성경을 보는 관, 태양아 멈추어라, 엘리야의 까마귀, 비유론, 재림론).

2)그릇된 타락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는 선악과라는 금지된 과실을 먹은 것이 아니라 천사와의 부정한 성관계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이는 통일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며 그들은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가린 부분이 하체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성경에는 성관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인류 시조의 타락에 대해서는 비유로 표현했을 이유가 없다(30개론 중 타락론). 또한 천사는 성(性)이 없다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였다.

3)그릇된 기독교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고 가르친다. 통일교에서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치냐"고 신문에 통단 광고를 내는 등 법석을 떠는 것을 기억하는 이라면 이 역시 통일교의 교리에서 빌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선명의 자리에 정명석이가 들어갔을 뿐이다. 실제로 그들은 문선명을 첫째 감람나무로 보고 정명석을 둘째 감람나무라고 한다. 그것은 세례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이 강림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영이 정명석에게 강림했다는 것이다(중심 인물론, 메시아 자격론,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관계사명 비교, 재림론 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구절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요 12:40). 예수는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박았으며 십자가가 원래 예수의 계획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누가복음 20:9-16절의 포도원 비유를 든다. 그러나 비유는 그 비유가 사용된 상황에 연결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의 비유는 해석의 실마리가 16절의 뒷부분과 17절에 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이 포도원 아들을 죽이므로 소작인들이 당하는 벌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한다고 하자 오히려 예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막 10:45).

4)그릇된 종말론

전도서 1:4절을 인용하여 이 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전환하여 영원히 있다고 주장한다. 구약시대의 끝에 말세가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끝에도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과 같은 말세는 되지 않을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다. 즉, 구약의 말세도 예수님이 지구의 끝을 맺지 않으셨고 신약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을 부인한다. 재림주는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가운데서 시대적 중심인물을 택하여 그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여 협조함으로 재림 예수의 사명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즉 재림주는 육적 구원을 위

해 오시는 것이며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고 육신으로 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善)의 자식을 번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육적 구원을 하시려고 재림주가 오신다는 것이다.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예배드림으로 깨끗한 구름이 된 기독교인 중에서 나타난다는 말이라고 한다.

5) 그릇된 구원론

시대마다 구원의 양상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영들은 영들끼리 전도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구약 사람이나 지리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선영계, 음부)에 가서 영들의 전도를 듣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 시대의 구원은 정명석을 중심으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

4. JMS집단의 활동

1) 정명석 생가의 성역화 작업

지난 1991년 8월 20일자 각 신문과 언론 방송은 일제히 대둔산 훼손 과 단체에 대한 보도를 낸바 있다. 이 기사는 이 과 단체가 제단을 쌓기 위해, 또는 단체훈련, 그리고 교주의 성역화 작업(대둔산 제단 주위 바위에 JMS라는 커다란 글씨를 흰 페인트로 씌)등으로 인해 그러한 훼손을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조선일보, MBC, 교계신문 등)¹⁹⁾

2) 정명석과 여성

정명석은 올해 58세의 미혼으로 알려져 있다. 일설에 의하면 그의 평창동 저택에선 여대생 4-5명이 수발을 들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여성 교인과의 사건으로 염문을 뿌렸다는 말도 있다. 지난 1991년 11월 서울대의 정명석 집단인 W.C.F.(World Cristian Federation)공청회에서는 특히 정명석의 여성문제가 논란이 되어 결국 정명석 집단이 반윤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다음에 소개할 것은 정명석의 여성관이 잘 나타나 있는 그의 여성학 및 소위 그가 영감으로 썼다는 시(詩)로서 그의 의식 수준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여성의 자궁은 지구인 모두 다 다르다. 그럴듯 이성적 쾌감도 다 달라 공합(자궁, 가슴 사이즈) ... 남자와 여자 맞아야 하는 것. 여자는 상냥해야 하고 감탄을 잘해야 한다. 너무 고지식하거나 딱딱하면 안돼. R(랍비, 정명석을 지칭)께 가까이 와야 R이 잘 코치해 주지. R이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지도할 수 있다. 선실과의 털, 겨드랑이의 털, 눈썹 등 다 손질하고 뽑아야 한다.” <1985년 설교 "여성학"에서 발췌>²⁰⁾

또 그의 영감으로 적은 시중에는 ‘절세가인’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서 정명석의 여성관을 살펴볼 수 있다.

“제목: 절세가인/

인간은 누구든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어하고/ 신(神)은 욕심쟁이 인간에게/ 딱 한가지만 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아름다운 여자 하나만 가질거야/ 그런데 여자도 속을 썩일

19) 심창섭 · 김도빈 · 오영호 · 박영관, op. cit., p. 277.

20) Ibid., pp. 277-278.

땀/ 천리 만리나 멀리하고 싶어/ 여자가 속을 썩일 땀/ 남자는 심장 다 타고/ 골치 다 썩어/
만일 여자가/ 창조주의 원래 지은 그 개성의 가치대로/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라면/ 이 지구촌
의 어떤 아름다운 것하고도/ 여자와 바꾸지 않을거야./ 여자는 보석, 여자는 아름다운 존재
야./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여자만 못하며/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빛이 난
다 해도/ 어이 여자만큼 비싸고 빛이 날 수 있으랴! “

정명석의 여성편력주의는 혼음의 역사를 따르며, 피가름 교리를 지닌 통일교의 사상을 그대로 받는 그에게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문제는 심각하다. 피해사례 부분은 따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적극적 포교

이들은 포교활동을 위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과 같은 행사에도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을 미혹케 하고 있다. 정명석은 “문화예술선교”로 화려한 재기를 꿈꾸고 있다. 그들은 주요단체는 국제문화예술평화협회, 사랑과평화회, 국제문화평화예술단, 밝은미소운동본부, 새문화재단, 지구촌대학문화교류협회, 한국응원협회, waba클럽(청소년포교) 등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① CGM(기독교복음선교회)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CGM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밝은미소운동본부와 이름만 달리할 뿐, 그 조직과 구성원에 있어서는 같은 조직이다. 현재 JMS는 “국제문화예술평화협회”라는 조직의 이름을 앞세워 대 사회화전략, 선교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최전방에 밝은미소운동본부와 KCA(한국응원연합)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CGM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CGM선교본부 봉사국, 전국 245개 교회의 봉사국, 선교국, 예술단을 관할하고 있다. 즉 JMS의 모든 교회와 예술단 조직들은 내부적으로는 CGM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외부적으로는 밝은미소운동본부에 소속, 연결되어 있다. 각 지역 교회가 포교를 위한 행사, 사회활동(공연, 봉사, 예술행사...)을 할 때, 내부적으로는 교단과 CGM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예술단의 지원을 받으며, 외부적으로는 같은 JMS조직인 밝은미소운동본부의 이름을 이용해서 행사기획, 대외섭외, 관공서 협조지원요청, 대 국민홍보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많은 청소년들이 현재 포교되고 있다.

각 지역 CGM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조직과 예술단 조직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역-서울사랑회, CGM 예술단(신풍예술단, KCA, 명째즈단...)/ 인천지역-부천사랑회, 부천문화예술단/ 수원지역-동그라미 봉사단, 안산예술단/ 대전지역-한발 사랑회, 신인예술단/ 광주지역-빛고을 사랑회/ 전주지역-청소년 복지센터/ 대구지역-대구 사랑회/ 울산지역-울산 사랑회/ 부산지역-밝은미소봉사단, 킹예술단/ 경남지역-마창진평화회/ 제주지역-제주 사랑회, 인간문화예술단.²¹⁾

최근 정명석 교주의 문화예술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간략하게 골자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야: 언어, 관광, 종교, 산악회, 태권도, 축구, 가수 등의 모든 봉사, 문화분야에 참여하라. 2. 이 나라 저 나라 문화예술로 묶어줘야 한다. 3. 문화교류는 신앙으로 안하니 정치나 종교에 안 걸린다. 4. 1인 10명씩 하자, 만 명 금방 된다. 5. 문화교류는 말씀

21) EXODUS, “JMS 왜 2002년 월드컵을 노리는가?”, 교회와 이단 통권93호(서울, 2002. 7), pp. 56-57.

을 안 가르친다. 사회팀을 만들어라 틀이 2개여야 힘이 더 온다. 6. 문화교류는 이성문제와 상관이 없다. 그냥 놔두어라. 7.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세워서 하라. 8. 자꾸 기도하고 해 나가면 문화예술선교에 관한 영감이 올 것이다. 기도해라.”²²⁾

② 밝은미소운동본부

‘밝은미소운동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단체는 친절교육강사 7명에 의해 64년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발족한 일본의 ‘작은실천운동본부’를 본따 2000년 9월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밝은 마음을 모아 밝은 미소로 밝은 세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운동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며 ‘친절한 한국인을 만들기 위한 매너교육, 2002년 월드컵을 밝은 미소로 맞이하기 위한 밝은 미소캠페인 전개, 밝은 미소 대축제를 통한 대 국민 화합의 장 마련,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인의 미소 알리기’ 등을 사업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와 이 곳에서 실시하는 ‘밝은미소운동’은 국내일간지와 공중파TV에도 적지 않게 소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월드컵 개최를 위해 더욱더 홍보와 행사에 열중하고 있다. 이들은 매스컴을 동원하며 단시간에 많은 활동을 진행해온 밝은미소운동본부는 대학생 자원봉사 단체 ‘실천사랑’과 ‘하나사랑자원봉사단’, ‘사랑과평화자원봉사단’, ‘GCM좋은사람들’과 같은 단체들과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는 ‘사랑회’ 조직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밝은미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²³⁾ 밝은미소운동본부의 이미지 마크인 님의 얼굴 그림은 “생명의 미소”라면서 한쪽 눈은 정자 또 다른 눈은 난자를 상징하고 원은 여성의 자궁을 상징한다고 한다. 밝은미소운동본부는 지난 6개월(2002년 상반기)간 1만명의 10대 청소년들을 새로 포섭하였으며, JMS 청소년 문화단체 waba클럽²⁴⁾과 밀접하게 연계하며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²⁵⁾

③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통한 포교

정명석은 지난 월드컵에 대해서 말하길, “월드컵은 세계적인 행사일 뿐 아니라 하늘의 행사이다”며 KCA(한국응원연합) 등 예술단을 총동원하여 치어리더 모집,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월드컵에 참여한다고 했다. 그들은 KCA치어리더단이 월드컵 개막식 때 치어쇼를 한다는 등 거짓 유포를 하고 모집광고를 내어 사람들을 JMS로 끌어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무근이었다. 실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일로 JMS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JMS는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²⁶⁾

이뿐 아니라, JMS는 부산아시안게임에도 밝은미소운동본부를 가동시켜 자기들에게 유익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그들의 기획서에 나오는 기획목표는 이렇다. “R(정명석)을 국가적 규모의 공식행사 가운데 초대받으실 수 있게 하여, 사회적으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림과 동시에, 이를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외적활동의 주요한 기반이 되게 한다. 또한 이는 후반기의 다시금 부활하는 섭리를 알리는, 이 시점에 터져야 할 첫 신호탄이 되게 한다.”²⁷⁾

22) Ibid., pp. 59-59.

23) 이동길, “JMS와 밝은미소운동본부의 정체”, 현대종교 통권333호(서울, 2002. 5), pp. 26-27.

24) Waba클럽의 대외적인 성격은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단체임을 표방하며 힙합, 탭댄스, 기타, 드럼, 피아노, 미술 등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들의 활동 내용들은 1) 각 지역 연습실에서의 교육, 2) 발표회, 3) 봉사활동, 4) 캠프, 5) 외국여행 등이다. 이 단체 역시 JMS가 청소년들의 포교를 위해 운영하는 단체이다.

25) EXODUS, op. cit.

26) 오명옥, “JMS, 2002 월드컵 이용한 해프닝”, 교회와 이단 통권91호(서울, 2002. 4), pp. 65-67.

27) EXODUS, “JMS,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 교회와 이단 통권95호(서울, 2002. 9), pp. 68-69.

EXODUS 홈페이지

h t t p : / / w w w . c g m . o r . k r /
h t t p : / / h o m e . o p e n t o w n . n e t / ~ s a j 1 1 / j m s . h t m

http://antijms.or.kr

인 터 넷 셉 리 공 동 체

삼광교회의

이단소개

부산 EXODUS 홈페이지

h t t p : / / w w w . p r o v i w o r l d . c o m / p o r t a l / i n d e x . p h p
h t t p : / / y e e s u . c o m / i d a n / j m s . h t m

http://antijms.or.kr/~pusan/index.html

영혼의

세계

중국선교동원의

이단소개

EXODUS English site

h t t p : / / m y . n e t i a n . c o m / ~ p j y 3 3 3 /
h t t p : / / w w w . c h i n a m m . o r g / h e r e s y _ 9 . h t m

http://antijms.or.kr/~justally/

홍

정

기

한국기독교네트워크

자료

일본 반 JMS 홈페이지

h t t p : / / a c o j 2 0 4 5 . n e t i a n . c o m /
h t t p : / / w w w . c h u r c h n e t - k r . o r g / ~ s u n g d o / e d a n . h t m

http://www.geocities.com/atssa1/

JMS의

홈페이지

JMS의

이단성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반 JMS 홈페이지

랍

비

사

랑

제5열

h t t p : / / h o m e . f r e e c h a l . c o m / r a b b i l o v e /

http://cafe.daum.net/hatejms/

이

영

희

6. JMS의 현황

JMS의 교회는 현재 전국 240여개소에 지교회가 산재해 있으며, 전국 거의 모든 대학에 그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³⁰⁾

1) JMS 중앙 본부

위 원 장: 안구현, 정범석

부위원장: 김형만, 김경천(011-211-9605), 신재후, 김기희

대 변 인: 김영중(017-212-6262), 김종인, 계용국

1. 언론대책부: 최재렬(016-343-8308), 최희권(016-348-7743), 배재용(016-518-9764), 서만근(016-209-3620)
2. 전화통신부: 박천권(016-464-1138), 이영용(016-346-7198), 윤인원(011-509-7707), 이국희(011-250-8597), 각 교회 총무
3. 행동시위부: 안채현(016-613-4098), 가정국 장로, 캠퍼스, 청년부, 교역자 전부
4. 제보자담당: 김재석, 박연화(011-238-2843), 양신일(016-219-6067), 임성희
5. 사법대책부: 김형만, 광주지검 검사 이양호, 서울 남부지검 검사 김윤욱
6. 홍 보 부: 정 화(016-307-1237), 김봉섭, 강재규(019-482-1108)
7. 재 정 부: 김근식(041-753-9971/3), 교단(041-753-6908/9)
8. 봉 사 부: 서울 여자 교역자
9. 총 무 부: 교단, 정수원, 조완국
10. 해 외: 김 인

대책본부: 대전총심(042-532-5274, 042-522-1770)

지휘본부: 서울영진(02-631-9002, 02-633-9005)

교단본부: 041-753-9971~3

2) JMS 국내외 교회 (지역별)

JMS 교회는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가 없고, 대한기독교 감리회 진리측이라고 얘기하면 JMS 교회이다. 최근에는 교회에 십자가를 세운다고 난리를 피기도 하였다. 교회목록은 부록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3) JMS 대학내 위장 동아리 및 세력

현재 JMS 동아리들은 자신들이 JMS와 무관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고 있다. 또한, 다른 동아리에 떼거지로 가입하여 그 동아리를 잠식하고 있다. 대학별 목록은 아래와 같다.

30) <http://home.opentown.net/~saj11/cir.htm>

건국대학교: 고들 빛
 경북대학교: 한울터, B0B
 고려대학교: 하늘과 땅(본교), 껍질깨기(이공), ICEL
 광운대학교: 가마솥
 단국대학교: 백설회
 대구대학교: 아기자기
 대전산업대학교: HIT
 동아대학교: 하단캠퍼스-만화 동아리, 구덕 캠퍼스-음악 동아리
 마산창원전문대: JMS
 부산대학교: 신앙과 예술
 서울대학교: 오손도손
 서원대학교: 보라매
 세종대학교: TRUE EYES (동아리협회장도 JMS 신도)
 숙명여자대학교: 댄스댄스
 성신여자대학교: 등대
 연세대학교: 아이셀 (ICEL)
 영남대학교: 고운회의, 불티나
 이화여자대학교 : ICEL
 인하대학교: FAS
 전남대학교: 예술과 신앙
 조선대학교: 새벽별, 신앙과 예술
 충남대학교: 에버그린(배제스타), 열정 응원단, 느티나무
 충북대학교: 예수사랑, 불새(응원단)
 한국외국어대학교: 빛을 찾는 사람들 (종교분과 소속)
 한양대학교: 탁구부 (80년대초부터 아주 뿌리가 깊음)
 홍익대학교: 부학생회장
 효성카톨릭대학교: 불꽃

4) 소속신도들 중 유명인

연예인: 모델 이X준, 가수 그룹 투X, 원로 개그맨 임X룡, 가수 전X록
 정치인: 구천서 의원, 강창희 의원, 1996년 문정수 부산시장
 야구선수: 삼성-양X혁; 빙그레-이X훈, 고X성; LG-이X훈, 전X건; 영남대-8명,
 OB베어스-노X석, 김X석, 최X현, 김X철, 김X조.

5) 기업체³¹⁾

① 부산 CGM회원이 주축인 (주)아이텍

1999년 7월 7일 설립되었고, 컴퓨터 인터넷 관련기술 회사이다. 부산대와 산학연 협력업체

31) 오명옥, op. cit., pp. 72-76.

이다. 대표이사는 박민식(전 부산대 JMS간사)이고 이사회에는 박창영(전 부산JMS교역자), 김여주, 조용진 등이 있다.

② (주)디씨진닷컴(dczone.com)

이 업체는 인터넷 서적 판매업체로, 초창기에는 판매순위 6위까지 했던 회사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 다른 업체(아이셀 여행사, JMS 여행관련 회사) 지원한 밝혀졌다. 디씨진 총 가입자는 21만 명이었다(2000년 기준).

③ 스타코리아(starkorea.com)

대표이사인 김일구(본명 김형태)가 현 JMS예술단 단장이다.

④ 다조아(화장품)

다조아는 여성화장품과 피부관리실 체인점이다. 사장은 문성룡(JMS사업운영국장)이다. 용인 깊은 산골에 본부를 두고 100여명의 다조아 직원들이 합숙생활을 하고 있다. 월급의 반 이상을 반 강제로 현금으로 받치고 있으며 100%전달되는 지도 의문이다. 다조아 연매출액이 수 십억 단위로 예상된다.

- 어필화장품, 팔로마코리아: 대부분 다조아 여자들이 최고급화장품을 방문판매 한다.
- 뷰티클리닉(피부관리실체인): 화장품판매와 포교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명동, 이대, 홍대, 양재, 강남, 여의도 지점 등이 있음).

⑤ 그밖에, (주)정다운, 바이오톤(특수 미용비누 판매) 등이 있다.

7. JMS와 관련된 피해와 사건

겉으로 드러난 피해 사례는 주로 성추행, 강간혐의에 의한 피해사례가 주이며, **부록에 피해 여성 두 명의 글을 실었다.** 여러 피해사례를 본 보고서에서는 목록으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금(2001년 12월)까지 진행되어 온 사건의 기록들을 목록 화하여 실는다.³²⁾

연 월 일	제 목
1984년 9월	현대종교 여신도 성추행 증언
1987년 6월	영레이디 여대생 폭로기사
1987년	정명석, 사기와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고소당함
1998년 2월 17일	KAIST 김도형씨를 JMS 신도가 폭행한 사건 발생
1999년 1월 7일, 8일	SBS · MBC · KBS, 정명석의 성노리개였던 황양의 납치 폭행 사건 보도
2월	KAIST 비대위중심의 리본달기 운동 전개
2월	정명석 처벌과 jms집단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전개
3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JMS 보도
7월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JMS 2탄 보도
7월 31일	EXODUS의 탄생
8월	JMS에 대한 현대 종교 기사
9월 30일	JMS에 대한 시사저널 기사
10월	MBC PD 수첩에 JMS 또 나옴
10월 15일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CGM)로 명칭 변경

32) <http://antijms.or.kr>

연 월 일	제 목
1999년 12월	정치영 변호사, JMS 형사 고발
12월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올해의 특집방송으로 JMS 방송 정명석의 형사고발장면 보도 및 피해여성들의 비장에 찬 결의 보도!!
2000년 1월 1일	새천년 첫날 월명동으로 가던 JMS신도들 46명 중경상
3월 4일	대전 매일에 게재된 jms 고소 사건
4월 19일	일본 FOCUS지, JMS 보도
4월 20일	해외도피한 정명석의 극비 입국과 EXODUS, 정의연대의 선전포고
6월	엄상익 변호사, JMS에 손해 배상 소송 제기
7월 4일	김태석, "교주 비위 사실 폭로하겠다."며 거액 뜯고, 성폭행하다 구속
7월 10일	JMS 관련 기독교신문 기사
8월 19일	반JMS 연합, 기독교 언론에 기자회견
8월 24일	정명석의 피해여성의 소송을 위해서 정명석 생가 월명동 가압류
9월 21일	정명석 처벌을 위한 탄원서, 진술서 요청
11월 24일	"참자유를 위한 Gospel Concert"를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
2001년 2월 13일	정명석 입국 : 잠적 1년 8개월만
2월 23일	정명석의 출국 금지 해제 및 반JMS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투서 시작
3월 10일	대전에 나타난 정명석과 그를 쫓는 김도형씨의 도심 추격전
3월 14일	EXODUS, 정명석의 출국금지 재 신청을 위해 앵벌이 고소
3월 16일	정명석 출국
4월 16일	JMS처벌을 위한 진정서 1차분 1400장을 청와대에 제출
5월	JMS 교역자 9명, 반JMS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진정서 제출
5월 18일	김도형씨, JMS 교역자 맹미영, 장금영, 문남현을 위증죄로 고소
5월 18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JMS 관련 기사
6월	2001년 6월호 <교회와 신앙> JMS 관련 기사
7월 14일	6월 29일부로 정명석의 기소중지 떨어짐.
9월 7일	맹미영, 장금영, 위증으로 기소됨
9월 19일	또 다시 형사 고소 당한 정명석
10월 24일	판결문 전문 (재판부에서 인정된 정명석의 성폭행)
11월 1일	민사재판에서 위증하는 서라미(서승희)
11월 30일	정명석, 대전 검찰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기소중지 떨어짐.
11월 1일 ~ 12월 19일	대만에서 성추행 사건 발생
12월 20일	대만 언론사의 월명동 취재

8. JMS와 관련된 최근의 상황

현재 교주 정명석은 크고 작은 6개의 소송에 걸려있는 상태이다. 그는 또한 법정 기소되어 여권이 홍콩영사관이 압류되어있는 상태이다.³³⁾ 그런데도 그는 지금도 해외(홍콩, 일본, 대만 등)를 돌며 성추행 사건을 계속 일으키고 있으며, 국내조직과도 계속적으로 연락, 조정하며 국내로 돌아와 재기의 날을 노리고 있다(부록에 대만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

33) 교주 정명석은 여권기간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 홍콩영사관에 갔다가 기소중지자로 여권을 압류 당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명석이가 입국해야하는 날짜가 돌아온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해외도피기간을 신도들에게 '예수님의 광야40일'과 같은 기간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속이고 있다.

하였다.). 지난 2002년 8월 20일에 있는 재판에서는, 2001년 8월에 교주 ‘정명석이 성 관계를 요구한 적도, 가진 적도 없다’ 고 진술했던 JMS여신도 2명이 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III. 결론

JMS는 분명 이단이다. 더럽고 추잡하면서도, 참으로 교묘하고 지능적인 현 시대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에덴동산의 뱀 같은 이단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명석과 JMS집단은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 “노락질하는 이리” 같은 존재이다.

교주 정명석은 20년간의 기도원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잡다한 신비사상에 심취한 듯 보인다. 또한, 그의 이단사상은 통일교에서 접한 원리강론의 주요 골자를 거의 베껴서 만든 30개론을 통해 완성되었다. 이 30개론의 요점은, 결국 자신이 재림주(육을 구원시킬,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주)이며, 이제는 자신의 말을 ‘하늘의 법’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과 원리강론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만든 30개론은 바른 성경관을 무시한 처사이다. 정명석은 삼위 중, 성부를 남성인 아버지로 보고, 성령(성신)을 여성인 어머니로 보며, 그 결과 성자 아들이 나왔다고 한다. 이는 성경적인 바른 삼위일체와 충돌된다. 또한 정명석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만 구원한 것이며, 자신이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주로 육을 구원하기 왔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기독교론과 재림사상을 가진 이단임이 분명하다.

JMS 정명석 집단을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들은 참으로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갖게되었고, 이들은 또한 매우 교묘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한 인간의 사욕적이며, 사탄적인 행각은 그 끝을 보이지 않는 계속되는 활동들 또한 늘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JMS집단의 여성 신도들 중 대부분(어느 정도의 미모, JMS에 신앙 있는 여자들)은 정명석과 성적관계를 모두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것은 JMS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왜, 이들이 나오지 못하는가? 아니 왜, 나오지 않는가? 기본적으로는 2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겠다.

첫째는, 세뇌교육이다. 이들은 30개론을 되풀이해서 반복교육, 통과절차를 갖는다. 새로운 회원으로 등록되기 위한 공부 후의 시험은 물론 계속적으로 세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탈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공갈을 계속한다. 실제 JMS경호부는 크고 작은 일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탈하게 되면, 정명석과의 성관계를 부모와 가족, 주변사람에게 알릴 것이며 또한 본인과 주변인에게 큰 보복을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이탈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탈을 한 대부분의 이탈자들도 자신의 살던 집을 이사가고, 모든 연락처를 바꾼다고 한다.

JMS집단과 교주 정명석은 분명 못된 이단이다. 이제 우리는 정명석과 JMS가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새빨간 거짓말이며, 그들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생겼다. 이로써 이들의 피해로부터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JMS에 간접적으로 대항하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나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에는, JMS이탈자들을 도와준다든지, 주변의 이단에 빠진 사람을 설득·기도하며 구출한다든지, 반JMS모임인 EXODUS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대항은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교회가 전파하는 일’인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교회와 이단 편집부. “JMS 이단 정체”. 교회와 이단 통권89권(2002. 2.). pp. 40-57.
- 심창섭·김도빈·오영호·박영관. 기독교의 이단들. 서울: 대한예수교총회출판부, 2000.
- 오명옥. “JMS, 2002 월드컵 이용한 해프닝”. 교회와 이단 통권91호(2002. 4.). pp. 65-76.
- _____. “JMS 정명석 교주 해외 성추문 사건”. 교회와 이단 통권88호(2002. 1.). pp. 61-71.
- _____. “정명석 비리 폭로하는 anti-JMS 운동”. 교회와 이단 통권87호(2001. 12.). pp. 57-68.
- 이대복. 이단종합연구. 서울: 기독교이단문제연구소, 2000.
- 이동길. “JMS와 밝은미소운동본부의 정체”. 현대종교 통권333호. pp. 26-35.
- _____. “과연 waba는 JMS의 전위부대가 아닌가?”. 현대종교 통권331호. pp. 24-33.
-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 서울: 한국종교문제연구소, 1989.
- _____. 한국의 신흥종교 기독교편 4권. 서울: 한국종교문제연구소, 1987.
- EXODUS. “JMS,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 교회와 이단 통권95호(2002. 9.). pp. 68-71.
- _____. “JMS 여신도, 위증죄로 징역 1년 선고”. 교회와 이단 통권96권(2002. 10.). pp. 77-78.
- _____. “JMS, 왜 2002년 월드컵을 노리는가?”. 교회와 이단 통권93권(2002. 7.). pp. 56-60.
- _____. “JMS 이단 전국 포교소 주소록 공개”. 교회와 이단 통권92권(2002. 5-6.). pp. 66-74.
- <http://www.antijms.or.kr>
- <http://home.opentown.net/~saj11/cir.htm>
- <http://home.opentown.net/~saj11/jms.htm>

부록2. 교주 정명석의 잠언집 제1집 「하늘말 내말」 중 발췌

110. 꿈은 쓸개, 소는 우황, 사람은 각(角)이다.
-1966년 3월 15일.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기백있고 절도있는 훈련을 받고 10분 휴식시간 명상 중에.
153. 진리를 떠난 죽음은 그 어떤 것을 위해 죽는다 해도 개죽음이다.
-1968년 4월. 월남 뛰이호아 마두작전 때 들판에 여기저기 죽어 있는 적들의 시체를 보고, 영감.
222. 사랑의 상처는 평생 가도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429. 여자는 질그릇같이 약하다. 고로, 잘못 다루면 금이 가고 깨어지기 쉽다.
444. 과거 30년을 뺀히 내다볼 수 있는 눈은 영안(靈眼)밖에 없다.
-1973년. 영안을 뜨고 세상을 내다보고 깨달은 말씀.
588. 남자가 속을 썩이면 골이 아프지만 여자가 속을 썩이면 속이 썩고 뼈가 쭈시고 아픈 법이다.
606. 한국은 종교의 옥토땅이다.
-한국은 세계 종교핵심지의 나라라 세계 그 어느 종교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잘 뒹을 깨닫고
613. 역사의 시발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그것도 홀로, 보잘 것 없는 이 사람이. 아아 감사할 뿐이고 감탄할 뿐이다.
-1975년 12월 밤 3시. 고향 설산 대둔산 기도굴에서 영감.
642. 천재는 도시에서 나지만 인자(人子)는 산에서 난다.
647. 너는 애인을 사귀듯 하늘을 사귀어 놓아 보아라. 애인 사귀어 사는 것과 무엇이 더 다른가.
744. 큰 사명 가지고 째째하게 복덕방이나 구멍가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처음 구멍가게로 부터 시작하여 소매점, 도매점, 슈퍼, 공장, 회사, 그룹으로 성장하고 커야 된다.
834. 연애는 쉽고 결혼은 어렵다.
941. 인간이 가치성 있게 살면 보석 값이지만 가치성을 상실하고 살면 껌 값이다.
989. 사탄을 연구하려면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하면 꽤 많이 알게된다. 똑 같은 사고를 가진 놈들이니까.
993. 공산주의가 없어지기까지는 상대인 민주주의에 지상천국을 이룰 수 없고 사탄이 존재 하는 한 종교적 지상천국을 이룩할 수 없다.

부록3. 교주 정명석이 영감으로 지었다는 새 노래

- [주1: 수많은 곡 중 친숙한 멜로디만 골랐다.]
- [주2: 기성은 기존의 기독교, 섭리는 JMS를 말한다.]
- [주3: 예수 이전은 구약, 예수 이후 JMS까지는 신약, JMS부터는 성약]
- [주4: 달밖골이라고도 함. 월명동은 정명석이 태어난 JMS 성지, 10년째 성역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지명은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 151번지]

1. 돌아와요 섭리항에(돌아와요 부산항에)

꽃 피는 섭리항에 님이 왔건만 주님 떠난 기성항에 기다리는 자 슬피 우네
기성을 향해하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섭리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2. 섭리부르스(대전부르스)

잘 있어요 나는 가요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섭리역사 천국행 마지막 역사
기성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때
나만이 외치면서 심정 태우라
아~~~~~ 붙잡아도 난 못말려
섭리행 급행 열차

3. 일편단심 주님이여(일편단심 민들레야)

(1절) 님 만난 날에 나 알았네 진리와 사랑의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 단심 주님이여
그 긴긴 이 천년은 그 긴긴 이 천년은 눈보라의 겨울이었네
(후렴)

행복 속에 섭리 인생 비바람에 꽃피니
나는 새 역사 기쁜 인생이여
긴 세월 하루같이 주님만 쳐다보니
주님의 그 목소리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이 마음은 일편단심 이 사람은
떠나지 않으리라.

(2절) 밤이 가면 낮이 오듯 신약 가니 성약왔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 역사의 주님이여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가시밭길 산을 넘고
바다건너 찾아 왔네.

4. 월명동 그 사람(신사동 그 사람)

내 마음 한가운데로 스며드는 그 얼굴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 날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또 만났네 나는 보았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아아 아쉬움 남기고 가네 월명동 그 사람

부록4. 교주 정명석이 영감으로 지었다는 2편의 시

인물 났네(1989년 1월 16일)

인물났네,
인물났어.
백년이나 묵은 토담집에서
저 기와요처 고대광실
그 높은 집도 하고 많은데
하필이면
첨첨산중 두메산골
토담집에서
인물이 났다니.

하기야
저 아브라함 링컨은
통나무 집에서 났고
예수는
베들레헴 촌락 움막집
말 마구간에서 났다지.

아, 고금역사 이후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의 영웅, 열사
성현, 성자들이
다들 그리 했었지.
움막이면 어떠하고
토담이면 어떠하고
통나무 집이면 어떠하랴.

그저
천품 좋고, 재질 능하고,
제 때 나면 그만이지.
지자는 강을 좋아하여
강가에서 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여
산에서 난다지.

그렇고.
그렇고 말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난거지.

아!
전설에 얹힌
대둔산 영산준령
인대산 노령산맥

쭉-뻗어내려 맞닿은
저 두메산골 월명동
백년이나 묵은 토담집에서
인물났네, 인물났어.
작고도 작은 마을에서
지구촌에 큰 인물이 났네.

이제 알았지!(1988년 10월7일, 상도동)

처음엔
나도 나를 몰라 반대하고
가정도 나를 몰라 반대하였지.
또 민족도 나를 몰라 반대하고
세계도 나를 몰라 반대해 왔지.
그렇구 그렇구 말구.
그래서 그렇게 했지.

그런데 지금은
나도 나를 알고 나를 찬양하고
가정도 나를 알고 좋아하지.
민족도 나를 알고 좋아하고
세계도 나를 알고 좋아하지.
그렇구 그렇구 말구.
사람들이 다들 몰라서 그렇게 한거지.

처음에 가는 길은
누구나 다 그러했었지.
그러했었구 말구.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었구 말구.

그래서 형제도 이웃도 다들
그렇게 했었던 거지.
아!
이제 다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도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